

수도권 문화콘텐츠기업, 잇따라 광주에 '등지'

스튜디오-법인 설립, 위즈온센-본사 이전 협약 체결 3년내 16개 기업 유치... 7월 수도권서 기업유치설명회

‘문화수도’ 광주에 수도권 문화콘텐츠기업들이 잇따라 등지를 들고 있다.

광주시는 25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기업제작 기업 ㈜스튜디오, 콘텐츠기업 ㈜위즈온센과 ‘기업 유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스튜디오는 광주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오는 2026년까지 20명 안팎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위즈온센도 본사 이전을 통해 2026년까지 3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기업 이전과 투자실행과 관련한 행정서비스 제공, 문화콘텐츠 기반시설(인프라) 지원, 투자 특전(인센티브) 제공, 지역인재 채용 지원 등에 나선다.

스튜디오는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개발자 중 일부가 2015년 창립한 회사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인 ‘포갯츠: 라스트 워(Four Gods: Last War)’를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이다.

위즈온센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3년 글로벌강소기업 1000+프로젝트’에서 글로벌 유망기업으로 선정될 정도로 기술력을 갖춘 콘텐츠기업

이다. 지난해 영화 ‘강다니엘: 마이 퍼레이드’, ‘사랑의 불시착(라이브 인 서울)’을 제작·배급했고, 일본 후지TV 유통권을 선판매하는 등 콘텐츠 산업의 신시장 발굴과 해외판로 개척에도 주력하고 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5월에도 서울 소재 모바일·PC 기반의 요리 시뮬레이션 게임업체 그래퍼스㈜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업체는 광주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연이은 기업유치 성과는 콘텐츠기업유치협의체를 구성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의 풍부한 세계 혜택과 자금 지원을 앞세운 기업 유치 활동의 결과물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실제 광주시는 콘텐츠기업유치협의체를 중심으로 최근 3년 동안 수도권 소재 16개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콘텐츠기업유치협의체’는 광주의 강점인 국내 최대 규모의 영상제작 장비를 갖춘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인력양성 프로그램인 GCC사관학교, 광주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운용 중인 지역특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문화콘텐츠 기업 대표들이 25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기업유치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정만수 ㈜스튜디오 대표,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 이동원 ㈜위즈온센 대표. <광주시 제공>

화펀드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펀드 등도 적극 홍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7월 서울에서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권역, CGI센터권역, 아킴보호텔(라마다 총장) 등 투자진흥지구 관련정보와 입주기업의 특전(인센티브) 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콘텐츠기업유치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기업유치 활동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등 기반시설과 인력양성 플랫폼, 투자조합 등을 활용해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자연재해 피해 기업 지원

중진공 ‘앰블런스맨 제도’ 운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5일 “자연재해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앰블런스맨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앰블런스맨 제도는 복구비용이 필요한 자연재해 피해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문 심사인력이 현장평가 등을 거쳐 5일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대출금리는 1.9%(고정금리), 대출한도는 최대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다.

국광태 중진공 광주지역본부장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앰블런스맨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국 지역본부 또는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1주 앞두고 돌연 연기

정책 혼선 부추기는 정부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돌연 두 달 연기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 1주일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미뤄지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5일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범정부적 자연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으로 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더라도 DSR을 적용받는 모든 차주의 한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고DSR’ 차주들의 최대한도가 감소하는 건데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면서 “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이 줄어드는 차주가 약 15% 정도로 분석돼 이분들의 어려움을 좀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개월 미뤄졌고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시행일 역시 내년 초에서 내년 하반기로 연기됐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영끌’ (고 DSR) 차주 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같은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더라도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과 만기에 따라 약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20일 만에 4조 4000억원 이상 불어나는 등 불안 요소를 보이는 상황에서 나온 터라 시장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들도 수일 전까지만 해도 대출한도 축소 시뮬레이션 등을 바탕으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준비하다가 갑작스러운 연기 통보를 받았다.

은행권에서는 “정책 일관성을 떨어뜨리면서 자칫 시행 연기의 성과를 따로 보지도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온다.

금융위는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스트레스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제할 수 있어 효과도 더 커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
|--------------|------------------|
| ↑ 코스피 | 2774.39 (+19.66) |
| ↑ 코스닥 | 841.99 (+0.47) |
| ↑ 금리(국고채 3년) | 3.201 (+0.007) |
| ↓ 환율(USD) | 1387.50 (-1.50) |

MG새마을금고, 소셜·그린·휴먼·글로벌 4대 가치 실현 ‘ESG 경영’ 속도

지역사회 밀착·상생 경영 강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5일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4대 핵심분야를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가 추구하는 4대 핵심분야는 ‘소셜 MG’, ‘그린MG’, ‘휴먼MG’, ‘글로벌MG’로 구성됐다.

소셜MG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새마을금고의 정체성을 높이는 분야다.

저출산 시대에 첫 통장을 개설한 출생아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최대 연 12%의 금리를 제공하는 ‘MG희망나눔 융용적금’ 상품을 판매해 78억원 가량의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그린MG는 환경친화적인 방법을 통한 녹색성장에 발맞추어 추진하는 분야다. 새마을금고는 지

난 2021년부터 ‘그린MG 걷기 좋은 날’ 캠페인을 열고 걷을 기부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1만 7000명이 캠페인에 참여해 목표 기부 걸음을 초과하고, 배려계층 노인 61명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1억원을 지원했다.

휴먼MG는 배려계층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는 분야다. 지난 1998년 시작된 ‘사랑의 줌도리’를 통해 누적 모금된 1143억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를 지원해왔다. 올해부터 추진 기간을 기존 연 1회에서 상·하반기 각 1회로 확대하는 등 ‘사랑의 줌도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MG는 전 세계 금융소외지역에 ‘교육’ 기술 원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새마을금고 모델을 전파하는 분야다. 지난 2016년 미얀마를 시작으로 우간다, 라오스 3개국에 57개 새마을금고를 설립해 1만 7000여명의 회원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를 바탕으로 피지, 캄보디아 등으로 사업대상국을 확대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도우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 20명이 지난날 2일 서울시 관악구 굴참마을에서 지역민을 위한 ‘가정의달 맞이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실시해 지속 가능한 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1분기 광주 건설공사 계약금액 반토막

1조2000억...전년비 57% 감소 울산 이어 전국 두 번째 감소율

올 1분기 광주에서 체결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이 전년보다 60% 가까이 감소했다.

25일 국토교통부의 ‘2024년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까지 광주지역 건설공사 계약금액은 1조2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을 기록한 전년 1분기와 견줘 5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건설공사 계약금액은 전년보다 6.5%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18% 감소하면서 전국적으로 6.7%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광주는 비수도권에서 울산(-95%) 다음으로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전남은 3.7조원으로 전과 같은 금액을 기록했다. 반면, 건설회사 본사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조사

한 건설공사 계약금액에서 광주와 전남은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 1분기 광주에 본사를 둔 회사의 건설공사 계약금액은 2조원으로 전년 1분기(1조2000억원)보다 66.6% 상승했다.

전남은 전년도 1분기 3조5000억원에서 올 1분기 5조60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60% 상승률을 보였다.

충남과 울산,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비수도권은 모두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의 계약액이 29조4000억원으로 5.2% 감소한 반면 51~100위 기업은 3조8000억원으로 6.1% 늘었다.

101~300위는 5조2000억원으로 12.8% 늘었고, 301~1000위는 6조1000억원으로 18.9%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1~3월 공공과 민간에서 발주한 건축, 토목 공정을 대상으로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SSAFY 광주 캠퍼스’ 10기 교육생들이 수료식을 앞두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청년SW아카데미 고교생까지 문호 확대

광주캠퍼스 등 오는 10월 모집

삼성은 25일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의 교육생 대상을 기존 대졸자에서 마이스터고 졸업생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삼성은 광주캠퍼스를 비롯해 오는 10월 모집하는 전국 SSAFY 13기부터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생을 교육에 실시한다.

삼성은 마이스터고에서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이 SSAFY 교육을 받아 경쟁력을 강화해 산업 현장 내 SW(소프트웨어)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SAFY는 삼성의 SW 인재 육성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SSAFY는 지난 2018년 1기 교육을 시작해 현재 진행 중인 9기까지 약 6900명을 배출했는데 이 가운데 5748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국내 160개 기업들이 채용시 ▲서류심사 면제 ▲코딩 테스트 면제 ▲서류심사 가점 등 SSAFY 수료생에 대한 우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SSAFY는 1년간 매일 8시간, 총 1600시간의 교육 및 교육생간 협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개발자를 양성하고 있다.

교육 과정은 무상이며, 교육생 전원에게는 매달 100만원의 교육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채용 박람회, 기업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해 진로 상담, 면접 컨설팅, 채용정보 제공 등을 상시 지원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전남 청년·신혼부부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광주와 전남의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총 169가구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생아 출산 가구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가 해당한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에게 공급된다.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I 유형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90%)인 가구가 다가구 등에서 시세의 30~40%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II 유형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인 가구가 다가구·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27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